

科学技術者倫理要綱

現代的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者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될 倫理要綱을 아래와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써 祖國의近代化에 이바지할 것을 깊이 銘心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 公正하게 处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権威를 維持하도록 努力하며, 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団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利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도 從事하여서는 안되어, 의아스러운 企業体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주는 것을 拒絶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人이나 雇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을 지켜야 한다. 또한 他人의 資料·情報를 引用할 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根한 發言과 非權威의 또 眩惑的宣伝을 삼가야 하며, 또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特히 他人의 利害에 關係되는 評價·報告 및 証言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応分의 物質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

編輯後記

6월호가 너무 늦어서 송구스럽다 갑자기 기술교본을 평찬하는 엄명이 다른 일손을 염두에 두게 한 탓이다.

6월호를 겨우 내놓고 보니 장마를 앞둔 무더움이 일손을 더디게 한다. 시원한 바다가 그립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대한조선공사의 萬八千ton 화물선 준공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다 자료수집에 협조해주신 姜洪允氏에게 감사한다.

모든 分野에서近代化를 向해 치닫고 있는 哥羅 漢藥部門을 두드려 보았다. 뒤늦게 서울大學校 韓龜東教授의 玉稿가入手되어 特輯으로서의 體制를 갖출 수 있어 고마웠다. (鎰)

科總 任員 名單

會長	金允基
理學部門副會長	權寧大
工學部門 //	金海琳
農水產部門 //	玄信圭
保健部門 //	徐永圭
綜合部門 //	金東一
理事兼事務總長	朴勝燁
理學部門 理事	金憲奎
//	金漢台
//	李敏載
//	崔尚相
工學部門 理事	金汝瑾
//	金在璣
//	吳鉉禪
//	禹亨疇
農水產部門 理事	金文漢
//	李南信
//	李賢賢
//	李春寧
保健部門 理事	羅世振
//	閔寬植
//	李春根
//	洪文和
綜合部門 理事	柳坤鐘
//	李載會
//	周利變
//	崔亨燮

月刊 과학과기술

7月號(通卷 38號)

登録番號 라 1115호(定期刊物)

登録年月日 1969年 2月 20日

發行日字 1972年 7月 15日

發行人 金允基

編輯人 金憲奎

印刷人 金相文

發行處法人 社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서울特別市鍾路區弼雲洞261

(성도빌딩 2층) 電話 75-3254番
73-1849

光化門 私書函 105號

定價(150 원)